

換率变动이 國內油價에 미치는 影響

鄭 萬 源

〈動力資源部油政課・行政事務官〉

I. 序 言

1. 82. 3. 11 油價引下

작년 中旬쯤 부터 國際原油價는 내리는데 國內油價는 내리지 못하는 理由를 보다 쉽게 說明하기 為한 研究가 進行되었다.

왜 國際原油價는 내리는데 國內油價는 내리지 못하는가? 이것은 한참동안이나 미스터리라도 되는 듯 日刊紙의 가십거리로, 만화가의 素材貧困을 充足시켜 주는 도구로 油價를 担當하는 사람들을 괴롭혀 왔고, 한번 두번도 아니고 繼續되는 뜻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기에 우리도 어지간히 피곤해 졌던 것이다.

그 主犯이 바로 본란의 主題인 換率임은 이미 거의 周知의 事實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世界原油生產量의 約 1%를 使用하고 있으며, 이를 全部 產油國에서 導入하고 있다. 82年 3月 時點에서 볼 때 OPEC에서 89%정도, 非OPEC에서 11% 정도를 들여왔고, 이러한原油代錢은 年間 70億달러에 達하고 있다.

더구나 本会報 82年 3月号 “유전스 使用이 国内油價에 미치는 影響”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精油社는 原油를 外上으로 購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船積時點의 換率과 支払時點의 換率差異만큼 換差損이 發生하고 있다.

換率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80年初에 1 달러에 485원 하던 換率이 年末에 662원 3 전으로 36.6 %가 上昇하였고, 81年에도 6.2%가 올라 年末에 703원 3 전까지 올랐던 것이다.

이러한 換率上昇 下에서 國際原油價引下分은 換率上昇에 따른 油價引上要因을 緩和시키는 役割에 그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러한 연유등으로 하여 國내油價라는 重要한 作業의 一席을 차지한지 2年 여가 되는 筆者에게도 国内油價를 내린다는 것이 内生前에 可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絶対不變의 真理인양 늘 나를支配하고 있었던 것이 事実이다.

그러나 82년 3월 11일 우리는 國내油價를 비록小幅이나마 내렸다.

2.82% 그 比率이 問題인가? 내릴 수 있었다는 事實이 얼마나 우리를 벅차게 만들었던가? 그 作業을 한 우리는 福 받은 사람들이다. 정말 福 받은 사람들이다.

2. 油價擔當實務者로서의 感

世上萬事 모든 일이 輕重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어디 쉬운 일이 있으랴만, 價格이라는 것이 一般的인 常識의 범주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難点이 있음을 어찌랴.

国内金利가 내려 모든 企業이 좋았다고 박수치고 있을 때에 우리는 国内金利가 내리면 油價 上昇要因이 發生한다는 報告書를 作成한다.

常識에 어긋나는 数字가 우리 손에서 計算되어 나올 때, 우리는 이를 어떻게 說明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봉착한다. 油價算出時 1 배럴當 100원이 틀리면 年間 200億원에 該當하는 損益 差異가 發生한다. 数도 없이 많은 費用別 會計處理 方法에 따라 1,000億원이 넘는 数字가 왔다갔다 할 때, 在

庫資產評価方法이 食卓위에 안주감으로 놓여야 할 때 우리는 망연해진다.

今年에 換率은 몇 퍼센트 올라갈 것이고, 國際金利는 어느 水準을 維持할 것이며, 國際石油製品價格은 어느 水準에 이르러 国内需要를 充足하기 為하여는 얼마만한 石油製品이 輸出되고 輸入될 것이니까 이에 따른 精油社의 損益은 어떻게 되고 精油社의 資金收支는 어느 水準에 이르고…

삶이라는 것이 하나의 演劇이고 우리는 모두 主演俳優고 觀客은 단 하나自身의 良心뿐이니까. Maslow에 依하면 人間의 慾求中 最高價值를 갖는 慾求는 自己實現의 慥求라니까 완벽을 向해努力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니까. 그레 金九 선생님께서는 祖國을 為해서는 내가 수문장인들 못하랴. 수문장이라는 職責이 重要한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價值가 重要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니까.

겨우 2年에 일해놓고 그보다 몇 배나 더 苦生한 분들 앞에서 냉두리를 하고자 함은 아니다.

단지 李御寧씨 말씀같이, Means-ends-chains를 잊어버리고 아버님 산소에 인사드리려 간다는 目的은 잊어버리고 그 산소에 가기 為해 高速버스를 탄다는 手段겸 小目的에 매여 本来 가고자 했던 目的에 상치되는 手段을 講究할 때 가끔 쓸쓸해진다는 뜻이다.

国内油価를 担当하였다면 可能한範圍内에서 長期의 油価安定의 길을 모색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價格의 現実化, 馬夫로서의 政府의 位置등이 선명하게 부각되어야 하는데 与論이 막고, 눈앞에 보이는 매질이 막고, 精油社의 앞잡이라는 사시안이 막고, 非難을 為한 非難이 막고, 첨첩이 쌓이는 물 이해와 現実感覺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했던가 하는 뜻이다.

이 모든 것이 主의 뜻이라면, 이 큰 우주속의 조그마한 地球의 조그마한 아세아의 조그마한 韓國의 조그마한 서울의 조그마한 光化門에 조그마한 자리 하나 잡고 앉아있는 조그마한 제가 또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만은……

II. 換率變動이 国内油価에 미치는 影響

1. 国内油価算出方法

우리 나라는 政府에서 精油社가 과는 價格, 代理店의 手数料, 注油所(副販店)의 手数料를 全部 決定, 最終消費者 價格까지 最高로 販売할 수 있는 價格을 告示하고 있다. 하지만 본란에서 說明하는 油価는 精油社가 販売하는 價格, 即 稅前工場渡價格이 換率變動에 依해 어떻게 算出되는가에 限하고자 한다.

實際로 流通段階別 手数料는 原價算定이 極히 困難하여 稅前工場渡의 引上率 算定後 그範圍内에서 決定되고 있는 것이다. 例를 들면 稅前工場渡가 引上됨에 따라 이를 購買하기 為해 追加로 所要되는 資金에 對한 金融費用, 輸送費 上昇要因等을 適切히勘査하여 決定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 撥発油等 13個 石油製品價格에 各製品別 販売量을 곱하여 總 売出収益을 計算하고 이를 總売出量으로 나눈 販売複合單價인 油価는 1배월當 31, 930원이다.

이러한 油価는 곧 精油社의 売出収益이 되는 것이며, 精油社의 売出収益 以外의 収益은 2次輸送収益, 利子配當等의 営業外 収益, 固定資產(建物, 車輛, 機械등)을 売却하고 얻는 収益인 特別収益等이다.

따라서 売出収益은 油価에 依해 얻어지는 것이라도 売出収益 以外의 収益은 油価算出時에 全部 費用의 差減要因으로 反映함으로써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精油社의 収益이 費用(適正 利潤包含)과 같아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表 1> 油価構成要素 總収益·費用

I. 収 益	
精製費에서 差減	○ 売出収益 = 油価 ○ 2次輸送収益 ○ 営業外収益等
原 油 費	○ 原油費
原油導入金融費	○ 原油導入金融費
精 製 費	○ 製造経費 ○ 輸送貯油費 ○ 一般管理·販売費 ○ 自己資本利潤

2. 国内油価構成要素

따라서 油価는 크게 나누어 原油代+潤費과

□ 特輯 : 換率과 油価 □

精製費로 나눌 수 있고, 原油代関聯費用은 原油費와 原油導入金融費로 나누어진다. 原油費는 船腹引渡價格(FOB), 輸送費(Freight, 產油國에서 우리 나라까지 실어오는 運賃), 國內에 導入하기為한 附帶費(防衛稅, 貿易特計資金, L/C 関聯費用等) 및 基金(安定基金 0.7\$/B, 備蓄基金 1.5\$/B)으로構成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銀行에 내는 돈이든 稅務當局에 내는 돈이든 原本 金額 달러貨의 몇%等으로 設定되어 있으므로 納付日의 換率로 評価하여야 한다. (表 2)

〈表 2〉

国内油価 =	工場渡	+	流通段階別手数料
	原油代関聯費用	+	精製費
	(95%)		(5%)
原油価 × 換率 + 原油導入金融費			
(87.7%)		(7.3%)	

- 原油価 ; 平均導入原油価
- 原油導入金融費 및 精製費 : 精油 5 社加重平均費用

3. 換率과 油価

따라서 換率은 国内油価算出時 原油代에 頒하여 우리나라 錄으로 表示한 原油代를 算出하는 하나의 役割과 정유사가 유전스를 使用함에 따른 原油導入差損 發生의 두가지 役割을 担当한다.

(1) 原油代算出時의 影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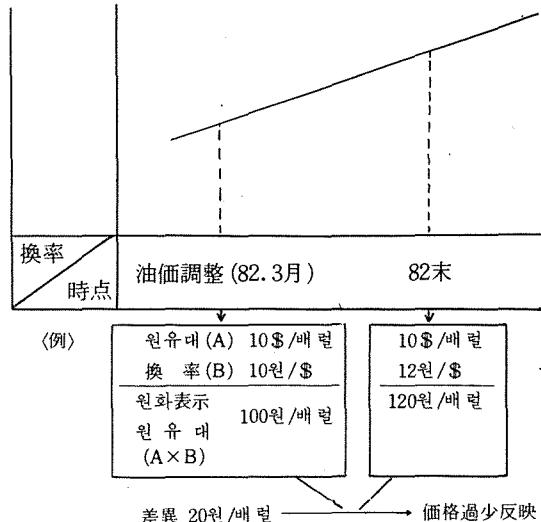
油価는 앞으로 一定期間 받아야 할 石油製品價格이므로 이러한 油価를 算出하기為하여는 当然히 앞으로 一定期間 동안의 平均換率로 評価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80. 1. 29 油価調整時 換率을 予想換率로反映油価를 미리 올렸다는 与論의 批判에 뒷이겨 80. 8. 24 油価調整以後 繼續 実績 換率로評価하고 있다.

만약 換率이 내려간다면 왜 내려갈 것을 予想反映하지 않고 最近의 높은 換率을反映하느냐고 할 것이다(?)

여하튼 換率은 実績值로反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떠한 影響이 나타나는가를 아래 〈表 3〉에서 보도록 하자.

〈表 3〉



따라서 油價算出時에는 換率은 実績換率로反映되며 油價算出時에 設定한 一定期間동안의 平均換率과 油價反映換率과의 差異에 原油代(\$화 表示)을 頒하여 이를 原油導入金融費에反映, 表3의 過少反映分을 解消하고 있다. (表 4)

〈表 4〉 82. 3. 11 油價調整時 反映例

- 換率 : 82 年間 3% 上昇前提 (82年初 703.3원/\$ → 724.4원/\$)
- 今番油價調整時 反映換率 : 714.3원/\$
- 今番油價調整～82年末의 平均換率 : 차이 : 5.0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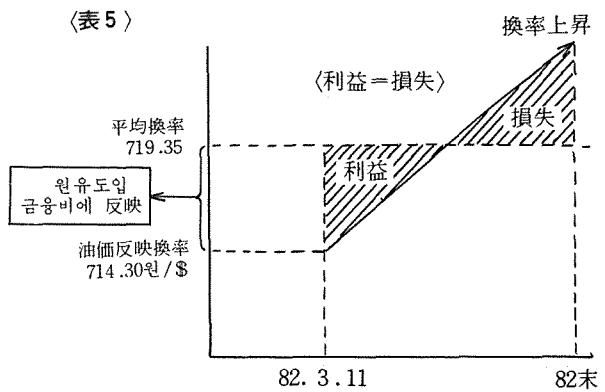
$$\frac{714.3 + 724.4}{2} = 719.35\text{원}/\$$$

- 原油導入金融費에反映한 換率差異分 :

$$5.05\text{원}/\$ \times \text{原油代 } 39.20\$/B = 182\text{원}/B$$

이것은 結果的으로 아래와 같은 效果를 보이는 것이다. (表 5)

〈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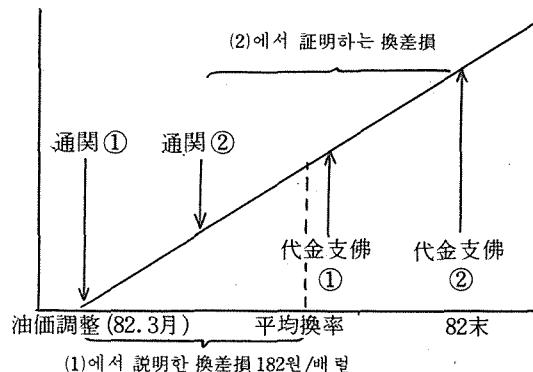
따라서 换率이 上昇하면 原油価가 變하지 않아도 원貨表示原油代가 上昇하여 油価引起要因이 되는 것을 보았다.

(2) 原油導入金融費에의 影響

原油購入時에는 위낙 莫大한 資金이 所要되므로 國際的으로 모두 유전스를 使用하고 있으며, 이의 不可避性은 本会報 82年 3月号 「유전스使用이 国内油価에 미치는 影響」에서 상세히 說明한바 있으므로 본란에서는 略하기로 한다.

精油社는 유전스 使用으로 1年내내 25億달러의 短期債務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年間 4億달러(유전스利子率 16.21%前提)의 利子를 產油國主去來銀行 等에 支給하고 있으며, 이러한 25億달러의 債務는 原油代를 갚고 새로 原油를 購入하므로 또 그만한 原油代가 債務에 얹혀짐에 따라 原油代를 갚을 때 当初 購入할 때보다 월선 많은 원貨金額을 支払하게 된다. 會計處理上 追加로 드는 資金을 換差損이라 하나 換差損은 實際로는 原油代의一部이다. 이는 아래 <表6>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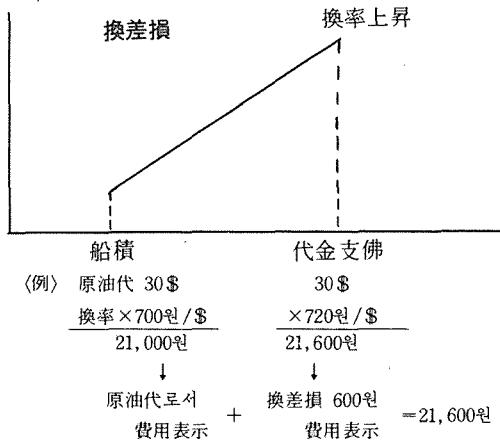


이러한 換差損이 現在 油価에는 390원/배럴만큼反映되어 있다.

이것은 換率이 變하지 않는다면 油価를 1.2% 낮출 수 있는 規模이며, 만약 換率이 上昇되는 率만큼 내려간다면 390원/배럴만큼 換差益이 생기므로 2.4%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参考로 原油導入金融費를 要約하여 셋으로 大別하고 油価에 反映하고 있는 算式을 添付한다.

<表6>



그러면 (1)의 原油代算出時에 換率이 미치는 影響과의 関聯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原油는 通關되면 即時 製品生產이 可能하다. 이 製品은 調整된 價格으로 即時 販売될 수 있다.

調整된 價格에는 앞에서 説明한 바와 같이 実績值換率이反映된다. 하지만 原油代는 유전스 滿期日에 代金支拂이 되므로 同 換差損만큼은反映이 안되는 것이다. <表7>

原油導入金融費

区分	算式
○ 実績換率反映補完	(予想平均換率 - 実績換率) × 原油代 L/C單価 × USANCE利子率(年利) × $\frac{\text{Banker's USANCE使用日}}{360}$
○ USANCE利子換差損	L/C單価 × USANCE使用日 × 1日換率上昇額

(3) 換率이 油価에 미치는 影響

(가) 年度別 油価上昇要因分析 :

換率이 變動되기 시작한 80年부터 換率은 油価上昇의 主要因으로 登場했다.

이를 年度別 油価上昇率 및 換率에 依한 油価上昇率로 보면 換率上昇이 어느정도의 油価上昇을 시켰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表8>

(나) 換率이 現在 上昇率만큼 引下될 境遇 油価에의 影響 :

이를 다시 면밀히 고찰하기 為하여 換率이 내려갈 경우를 상상해 보자.

만일 換率이 '82年 1年間 3%' 내려가서 82年

□ 特輯 : 換率과 油価 □

未換率이 年初 703.3원에
서 682.2원이 된다고 하자. 이 경우 優先 원貨表
示 原油代가 原油代變動
없이 28,001원에서 26,742
원이 되고, 原油導入金
融費中 유전스리기는 44원
/배럴 ($\frac{25\text{億} \$ \times 703.3\text{원}}{195\text{百万 배럴}} \times 3\%$)
이 減少되고,¹⁾ 原油導入換
差損은 現行 油価에 反映

된 572원/배럴이 없어지고 代身 390원/배럴 만큼
더 내려가서 結局 2,265원/배럴만큼 油価를 내릴
수 있으므로 油価는 7%가 引下될 수 있는 것이다.

(表 8)

年度別 油価上昇要因 分析

区分	79末	80末			81末		
		金額	上昇率	油価引上要因	金額	上昇率	油価引上要因
原油代 (\$/B)	25.41	38.43	51.2%	48.2%	41.07	6.9%	6.5%
換率(원/\$)	485	658.3	35.7	51	690	4.8	4.7
精製費(원/B)	767	1,648	115	6.7	4,518	174	10.7
計 (원/B)	13,089	26,948		105.9	32,855		21.9

註: 原油導入金融費는 精製費에 包含

친례 덮친 격으로 80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

다행히 換率이 81年에 6.2% 上昇에 그쳤고, 82
年 들어서는 3% 上昇에 뛰어질 것이라는 展望이
고 世界原油市場도 이란의 잃어진 市場 되찾기 運
動덕에 供給過剩狀態가 示顯되는 통에 조금은 떨어
지지 않을까라는 希望도 있다.

國力이 커져 원貨價值가 強勢를 보이면 原油価
는 오르는데 国内油価는 올리지 않는 理由를 쉽게
説明하기為한 苦悶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기대뿐
으로 글을 맺는다. *

III. 結 言

80年初 그동안 눌러 놓았던 換率上昇 要因이 80
年以後 大幅으로 터져 나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世界原油市場에서 아수라장같이 引上競爭, 物件사
재기競爭을 하는 통에 原油価가 마구 뛰는 데, 옆

●社会淨化캠페인●

① 모든 생활은 正直에 원칙을 두고 새時代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不信풍조를
파감히 추방한다. <양심적인 개인, 깨끗한 정부,
도덕적인 사회>

② 모든 생활의 기초를 秩序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倾注한다. <전전한 생활질서, 조화로운 公共질
서>

③ 歪曲된 美風良俗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精氣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 <자신에는 엄격, 가정에는 家風, 사회에는 예절>

④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無事安逸등 고질적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 철저히 책임지는 公職풍토를 확립한다. <上司에는 존경을, 책임은 내가, 功과 表彰은 부하에게>

⑤ 각자 자기 본분에 충실히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남의 일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止揚>

⑥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요소를
파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
립한다. <虛禮・虛飾, 사치풍토 배격, 시간・
물자・勞力낭비 제거>

⑦ 민주시민으로서의主人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不正・非理와 무질서에 대한 전전한
고발정신을 합양한다. <무관심 지양, 참여의
식 제고, 依他心 배제, 自主정신 배양>

⑧ 지나친 利己주의와 뿌리깊은 派閥, 緣
故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 和合의
기반을 拡充한다. <地緣, 學緣, 血緣 등 분열
갈등요인 해소>

⑨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부터 비롯된
다는 점을 깊이 인식, 女性의 적극적 참여
와 역할을 제고한다.